2020 화성시청소년골든벨 본선 정답해설

1번 [청소년수련시설]

화성시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며 각각 병점, 남양, 동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관들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2번 [청소년수련시설_청소년운영위원회]

화성시청소년수련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동탄청소년문화의집에 모두 존재하는 참여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각각의 홈페이지에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단체죠. 저희 수련관과 누림, 동탄 두 문화의집은 화성시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로써 꾸준히 교류를 해 오고 있구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관에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교류활동을 통해 화성시 전체를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개가 조금 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틀어 청소년참여기구라고 칭하는데요. 얼추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법적 근거와 기능으로 그 차이점을 들어보자면,

(1)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기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3)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 10조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이처럼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법적 근거와 역할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매년 1~2월 선발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활동을 이어가오니,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내년에 꼭 지원하여 좋은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청소년수련시설_동탄청소년문화의집]

동탄문화의집 시설 소개 및 이용 안내 게시판을 보시면 알 수 있었던 문제였지요.

동탄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은 앞서 언급했던 세 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일하게 노래방, 당구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이용시설로 댄스연습실, Y라운지가 있습니다.

Y라운지는 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고 하네요.

4번 [청소년수련시설_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문화활동 중의 하나인 청소년축제 “꿈틀”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 축제인데요,
청소년동아리공연, 체험존, 먹거리존, 이벤트존도 운영하고 모범청소년 시상도 하는 등 수련관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올 해는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꿈틀 축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찾아올 건데요. 연말에 시간되는 친구들은 코로나에 맞춰 준비 중인 꿈틀 축제를 즐기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청소년수련시설_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며 체험학습, 학습지원, 급식, 귀가지원 등을 운영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과 동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제암리순국기념관_아리타 판결문/예상문제 족보_6p]

1919년 일본인 중위가 4월 15일 부하 11명과 순사 1명, 순사보 조희창과 사사카 등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교회로 몰아넣고 불을 질러 30여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중위는 군법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아 더욱 우리 민족의 울분을 사게 했는데요.
이 학살 사건을 주동한 일본인 중위의 이름이 ‘아리타’입니다. 더욱 화나는 것은 ‘아리타 판결문’을 보면 무죄의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 아리타의 학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한 것으로 본 점과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네요. 우리 화성시에서 이 잔인하고 극악한 짓을 벌였던 일본 중위 ‘아리타’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암리순국기념관에 아리타 판결문이 유물로 전시중이라고 하네요.

7번 [제암리순국기념관_The Case Of Korea(한국의 사정)]

독립운동가 정한경이 1921년 미국에서 저술한 책으로, 일제의 고문과 탄압, 가혹한 식민통치, 독립운동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 제암리 순국기념관에 전시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특히 제암리 학살사건과 화수리, 수촌리에서의 일제만행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8번 [제암리순국기념관_발굴 출토유물]

제암리 학살현장에서 수습된 불탄 유해들은 제암리에서 약 4km 떨어진 도이리 공동묘지에 봉분도 없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63년이 지난 1982년 9월 21일부터 유해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발굴이 시작된지 3일 후 유해와 함께 뒤섞여 출토되었습니다.
'대일본대정팔년(大日本大政八年,1919)'에 발행된 1전(錢)과 옷에 달려 있던 단추 등을 통해서 발굴된 유해가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탄은 불에 탄 교회의 건물 부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9번 [제암리순국기념관_발굴 출토유물:3.1운동피살자명부]

『3·1운동피살자명부』는 3·1운동 당시 피살당한 630명의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명부로서, 1952년 이승만 前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입니다.
화성지역 희생자 48명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번 [청소년수련시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인데요,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의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및 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관하여 작년에 10주년을 맞아 올 해 11년째 여러분을 위해 달려오고 있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번 [제암리순국기념관_발굴 출토유물:진정서]

김종택은 고주리 학살사건의 생존자인 김원기의 둘째아들 이자 독립운동가 김흥렬의 후손이다. 고주리 학살사건으로 인한 한 가족의 몰락과 역사, 학살사건 이후 어려워진 유가족들의 삶을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국한문혼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서의 구성은 진정서, 故 김흥렬과 5명에 대한 약사, 선열유족 그후 동태, 선복선열추념가(先復先烈追念歌), 선열의 시범(示範),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2번 [제암리순국기념관_발굴 출토유물:이재민 목재배급표]

송산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으로 집을 잃은 송산지역 이재민에게 홍헌이 자신의 산을 개방하여 목재를 배부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재민 138명의 주소와 성명, 배급월일, 수량 및 수령날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 [융건릉_융릉:능의 역사]

1762년(영조 38)에 장조(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나자, 현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아래에 묘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묘의 이름은 수은묘(垂恩墓)라 하였으며, 1776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장헌세자라는 존호를 올리고 묘를 원으로 격상하여 이름을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1789년(정조 13)에 원을 현재의 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륭원(顯隆園)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광무 3)년에 사도세자가 추존되자 능으로 격상되어 융릉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융릉이 불리웠던 이름이 아니었던, 정답이었던 '영춘헌'은 무엇일까요?
원래 영춘헌 일대는 후궁들의 처소가 밀집된 영역이었으므로 영춘헌도 후궁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창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록 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정조 때로, 정조는 즐겨 읽는 책들을 창경궁 옛 홍문관에 감인소란 이름을 붙인 뒤 그 곳에서 편찬, 인쇄하였고 감인소 근처에 있는 영춘헌에 주로 머무르며 서재와 집무실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정조는 1800년(정조 24년) 6월에 이곳 영춘헌에서 승하하셨다고 합니다.

14번 [독립운동_예상문제족보 6p.]

화성시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은 사전에 계획된 만세운동으로, 천도교 세력과 수촌리의 기독교세력, 유교적 토착세력, 천주교 세력 등이 합동으로 일으킨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이끌었던 인물은 '백낙렬'입니다.
백낙렬은 1865년(고종 2) 12월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1일 김성렬, 안종후 등과 함께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3일 차희식 등이 주동하여 장안면 석포리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장안면사무소로 행진하면서 본격화되자, 수촌리 이장을 지내던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만세시위가 벌어진 사실을 알리고 시위 참여를 촉구하며 군중을 규합하였습니다. 장안면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인 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다시 우정면으로 행진하였고, 우정면에 도착하자 군중의 선두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집기류와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항하는 일본인 순사 1명을 죽이고 체포를 피해 계룡산 등지를 전전하며 3년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백낙렬은 1937년 1월에 사망하였으며, 2002년 정부에서 건국포장을 추서하였습니다.

15번 [청소년수련시설_누림청소년문화의집]

누림청소년문화의집은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하며, 모두누림센터라는 복합시설 내에 있습니다.
진로적성체험실은 모니터 터치 퀴즈 방식으로 다중지능검사가 가능한 진로설계관과 진로교육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강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 관련된 도서와 보드게임,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유 공간입니다.
다중지능검사의 수준이 중학생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니, 지금 중학생인 친구들, 본인의 진로가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한 번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16번 [융건릉_건릉:정조 선황제 이야기]

1775년(영조 51)부터는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였으며, 이듬해인 1776년에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아버지 장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왕권을 위협하는 노론 벽파를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였는데요. 또한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규장각 설치, 신해통공(금난전권 폐지 등) 실시, 신분의 제약 없이 능력과 학식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임진자 등을 새로 만들어 인쇄술의 발달을 기하고, 『증보동국문헌비고』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습니다.

16번 [융건릉_건릉:정조선황제 이야기]

그리고 이론이 중시되는 학문에 치우치지 않고, 실학을 발전시켰으며, 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기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구제를 위해 자휼전칙을 공포하고, 제도 개편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그 후 1800년(정조 24)에 창경궁 영춘헌에서 49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조는 묘호를 정종(正宗)이라 올렸으며,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광무 3)에 고종의 직계 5대 조상 추존으로 정조선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16번 [융건릉_건릉:정조선황제 이야기]

정조는 아버지 장조의 원(영우원)을 지금의 자리인 현륭원(융릉)으로 이장하면서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1790년(정조 14)에서 1795년(정조 19)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중요 경유지에 과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7번 [융건릉_건릉:능의 구성]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선황제와 효의선황후 김씨의 능으로 같은 봉분에 왕과 왕비를 같이 모신 합장릉 형식입니다.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와 어로, 수라간,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능침은 융릉과 비슷하지만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그 밖에 문무석인,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을 배치하였어요.

- 병풍석 : 융릉은 난간석 생략하고 병풍석만 두름
- 정자각 : 능 제향(나라에서 올리는 제사)을 올리는 곳
- 호 석 : 호석은 능침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수호신이고, 양석은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설치했습니다.

<table>
<tr>
<td>
융릉 병풍석</td>
<td>
건릉 정자각</td>
<td> </td>
</tr>
<tr>
<td colspan="2">출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융건릉</td>
<td>출처 : 네이버 블로그_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문화유산 클릭!!
<수원 화성 - 정조의 건릉> 게시글 내 그림</td>
</tr>
</table>

18번 [융건릉_참도_예상문제족보 5p.]

융건릉 진입 초기에 붉은색의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은 신성한 구역임을 의미하는데요. 홍살문에 들어가면 바로 안쪽에 있는 4각형의 돌판이 있는데, 이것을 배위(拜位) 또는 판위(板位) 라고도 하여 능행(陵幸)에 온 왕이 선대왕을 위해 절하는 장소입니다. 왕에게는 네 번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따라가면 제향을 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정(丁)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정자각이라고 부릅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참도'라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길은 왕이 걷는 어도이고, 왼쪽의 조금 높여진 길은 향과 축문이 통과하는 '향로'라고 합니다.

참도는 왕릉에서 정자각까지 깔아 놓은 이중의 박석길이다. 한 쪽은 높고 다른 한 쪽은 조금 낮게 조성되었다. 높은 쪽인 왼쪽 길은 능묘에 모셔진 혼령의 길인 신도(神道)이고, 낮게 만들어진 오른쪽 길이 어도(御道)이다. 어도는 선왕의 능묘에 참배하러 온 왕이 걷는 길이다.

19번 [융건릉_배위_예상문제족보 5p.]

융건릉 진입 초기에 붉은색의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은 신성한 구역임을 의미하는데요. 홍살문에 들어가면 바로 안쪽에 있는 4각형의 돌판이 있는데, 이것을 배위(拜位) 또는 판위(板位) 라고도 하여 능행(陵幸)에 온 왕이 선대왕을 위해 절하는 장소입니다. 왕에게는 네 번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20번 [제암리학살사건_예상문제 족보 4p.]

전동례(1898~1992) 할머니는 화성 출신으로 제암리 학살사건의 대표적인 증인이었고 당시 희생된 안진순 열사의 미망인입니다.

진술과 평가 면에서 일본 측의 자료는 왜곡, 축소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외국인들 자료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생생한 면은 있지만 동역이나 기록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1982년 전동례할머니의 구술증언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므로 시간, 이름 등 세밀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흐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

4월15일 낮 2시경 일본인 순사 사사까와 순사보 조희창이 군인들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오면서 열다섯살 위로 남자들은 모두 교회로 모이라고 했다. 양쪽 방향에서 열 댓 명씩 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고 오지 않는 사람은 불러왔다.

안중후 권사와 안진순 숙장은 교회 뒷문 쪽에 서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둘에게 먼저 총을 쏘았다. 북새통에 노경태는 탈출에 성공, 산으로 도망쳤다.

교회 안과 밖에서 짚을 늘어놓고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

21번 [융건릉_안녕리_예상문제족보 5p.]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고 수시로 능행차를 하였는데, 이때 정조가 행차 시에 이 마을에서 부왕의 능을 바라보며 부왕이 편히 잠드시기를 빌고 기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 마을 이름을 편안한 마을 이라는 뜻으로 '안녕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22번 [융건릉_융릉·건릉-능의 형식/예상문제족보 4p.]

조선시대 무덤은 무덤 속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 능(陵)·원(園)·묘(墓)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 능(陵) : 왕, 왕비, 그리고 추존왕과 추존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릉은 총 50기(이성계가 추존한, 이성계의 선조를 모신 8기의 능 포함)이며, 그 중에 40기의 능이 남한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10기의 능(제릉, 후릉 및 함길도(함경도) 8릉)은 북한 개성에 위치

• 원(園) : 왕세자, 왕세자빈 또는 임금의 사친(私親)[7]의 묘소에 붙이는 이름이다. 총 12기.

• 묘(墓) : 나머지 왕족(대군,군,공주,옹주,후궁)과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 풍수와 지형, 안장되는 순서 등에 따라 6가지 형식

• 단릉(單陵) - 한 언덕 위 하나의 능에 한 사람이 안장되어 있는 왕릉. 대표적으로 태조가 묻힌 건원릉

• 쌍릉(雙陵) - 한 언덕 위에 단릉이 나란히 두 개 있는 것. 대표적으로 태종과 원경왕후가 같이 묻힌 헌릉

• 합장릉(合葬陵) - 한 언덕 위 하나의 능에 두 사람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세종 과 소헌왕후가 같이 묻힌 영릉
•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두 개의 언덕에 각각 단릉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세조와 정희왕후가 같이 묻힌 광릉
• 삼연릉(三連陵) - 한 언덕 위에 세 개의 단릉이 있는 것. 헌종과 효현왕후, 효정왕후가 같이 묻힌 경릉이 유일
•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 - 하나의 언덕 위에 단릉이 위아래로 배치된 것. 대표적으로 경종과 선의왕후가 같이 묻힌 의릉

23번 [독립운동_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3.1운동 기간 중 일제가 저지른 가장 대표적이고 폭압적인 만행으로, 커티스, 테일러등이 작성한 보고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문서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일제의 학살 만행과 비인도적 식민 지배를 폭로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 이 상황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24번 [융건릉_융릉:장조의황제 이야기]

『영조실록』 1762년(영조 38) 5월 13일의 기사에는 아버지인 영조가 왕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나경언이 고변한 후로부터 임금은 왕세자를 폐 하기로 결심하였다. 임금은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에게 휘령전(정성왕후의 혼전)에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행례를 마치고, 세자가 뜰 가운데서 사배례를 마치자, 궁성문을 굳게 막고 사람의 출입을 금한 후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冠)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왕세자의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세손(정조)이 들어와 관과 포를 벗고 왕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아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전교를 내려 왕세자의 자결을 재촉하니, 왕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은 이어서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군병을 시켜 신하들을 내쫓게 하였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림 임덕제 마저 강제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왕세자는 임덕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곡하면서 따라 나오며 말하기를, “너 역시 나가버리면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하고, 전문에서 나와 춘방의 여러 관원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물었다.
왕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전교는 더욱 엄해지고 드디어 왕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이 황급히 들어왔다. 임금이 왕세자빈, 세손 및 여러 왕손을 좌의정 홍봉한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밤이 이미 반이 지났었다.
결국 뒤주에 가둔지 8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자신의 행동을 곧 후회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25번 [독립운동_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영상으로 보는 화성 3.1운동<화성3.1운동 기억하기>]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홍효선 및 홍면옥 등 송산사강 장터에서 100여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시위를 시작했고, 일본 순사 노구치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 곳이 바로 화성에서 처음 시작된 3.1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26번 [독립운동_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 : 화성3.1운동-3.1운동의 시작]

멕켄지가 3·1운동을 목격하고 저술한 책이다. 일제의 무단 통치와 이에 맞선 의병의 투쟁,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에 실린 영문 독립선언서는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7번 [독립운동_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 : 화성3.1운동-3.1운동의 시작]

가와바타는 화수경찰관 주재소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순사이다. 4월3일 장안 우정 지역 주민들과 종교 연합 사람들의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석포리와 어은리를 거쳐 쌍봉산을 향했다. 쌍봉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후 우정면사무소가 위치한 화산리로 이동 하였다. 이들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모든 서

류와 집기 등을 불태웠다.
이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화수경찰관주재소로 향하던 중 한각리 광장에서 잠시 전열을 가다듬은 뒤, 동쪽과 서쪽 두 패로 나누어 화수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다.
당시 주재소에 근무 중이던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郎)가 이들을 피해 달아나며 총을 쏘았다.
가와바타가 쏜 총에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도망가는 가와바타를 추격하여 처단하였다.

28번 [독립운동_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 : 화성3.1운동 - 화성으로 이어진 3.1운동]
장안·우정면 만세운동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마을, 장안·우정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의 위치와 만세운동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다.

29번 [독립운동_예상문제족보 8p.]
3.1운동 시기 일제에 의하여 교회가 불태워지고 주민들이 살해 당한 제암리는 화성시 향남읍의 작은 농촌 마을로, 제암리·고주리 사건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제암리로 불린 이유는 마을 산에 있는 두렁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암리는 둑 제, 바위 암 한자로 이름 지어진 작은 농촌마을이다. 두렁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두렁바위 또는 제암이라 한데서 제암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30번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무상교통정책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혁신 교통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화성시가 11월에 시행 예정에 있구요, 7월부터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7~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만23세 미만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하네요.